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픈 행사

축사

2026. 8. 27.

재정경제부
제2차관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부 제2차관입니다.

오늘은 정부와 여러 금융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준비해온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역량을 모아 주신
한국예탁결제원 이윤수 사장님과 임직원 분들,
그리고 8개 은행·증권사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 경과】

개인투자용 국채는 '24년에 첫 발행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25년 3월에는 5년물을 도입하였고,
청약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확대하였으며,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청약할 수 있는
적립식 청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해왔습니다.

올해는 3년물을 도입하였고,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퇴직연금계좌에서 직접 개인투자용 국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인투자용 국채를 처음 발행했던 '24년에는
연 발행량 0.7조원, 평균 청약률 100%로 시작하였으나,
금년 8월 기준으로 연 발행량 1.3조원, 평균 청약률 160%대를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의 의의】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민의 노후와 국채 시장에 갖는 의미가 매우 큼니다.

첫째, 국민의 퇴직연금 운용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앞으로 시중 은행과 증권사의 DC, IRP 계좌에서
직접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각자 은퇴 시점에 맞춰
더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노후 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가 가능해집니다.

국채의 안정성과 가산금리의 복리 효과,
퇴직연금계좌의 세제 혜택 등이 어우러져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더욱 탄탄하게 키워줄 것입니다.

셋째, 국채 수요의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5년말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규모는 500조원 수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로 유입되면, 그간 기관 위주였던 국채 수요가 일반 국민으로 확대되어 더욱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무리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번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계기로 국민들께서 소중한 노후 자산을 맡겨주시게 된 만큼 정부도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며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국채 발행 자금은 정부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하여 더 나아진 삶으로 갚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발을 내딛는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가 국민의 든든한 노후 자산 버팀목이 되고, 국채 시장과 퇴직연금 시장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